

성경적인 개인재무관리를 위한 경제교육내용 개발

김성숙(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조교수)

논문초록

본 연구는 개인재무관리의 영역별로 성경적 가치관과 실천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성경적인 개인재무관리교육내용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연구들에서 나타난 재무문제들과 개인재무관리교육 요구정도, 성경적 경제윤리 내용을 참고로 하여 네가지 개인재무관리 영역-개인재무관리가치영역, 직업선택영역, 저축 및 투자관리 영역, 소비지출관리 영역을 선정하였다. 각 개인재무관리영역에서 성경적 재물관, 직업관, 부자관, 소비관이라는 가치체계의 주요내용을 추출하였으며 성경적 재무관리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굴하였다. 첫째, 성경적 재물관을 토대로 한 재무관리의 목표는 청지기적 삶, 돈의 구속에서 자유로운 삶, 자족하는 삶이다. 둘째, 성경적 직업관에 기초하여 한 직업선택의 기준은 '선한 일'이었으며 직장생활의 태도는 근면과 충성으로 집약된다. 셋째, 성경적 투자관을 토대로 한 투자활동에 대한 태도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활동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며 투자의 목적을 선한 사업으로 궁극적인 나눔에 있었다. 넷째, 성경적 소비관을 기초로 한 성경적인 소비생활은 타락적 소비를 경계하고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나눔의 생활화에 있었다.

주제어: 성경적 재물관, 성경적 직업관, 성경적 투자관, 성경적 소비관, 나눔, 청지기, 자족, 선한 일, 돈의 구속

- I. 서론
- II. 선행연구고찰
- III. 성경적 재물관과 재무관리가치 교육
- IV. 성경적인 부자관과 저축투자교육
- V. 결론과 제언

I. 서론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면서 늘 '돈 걱정'을 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누리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은 '부자 되기 신드롬'을 양산하면서 부에 대한 맹목성, 더 나아가 신격화에 이르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투자열풍은 사람들에게 '부자'에 대한 환상까지 심어주고 있고 '진정한 부자'에 대한 성찰은 배제되고 있다.

최근 많이 실시되고 있는 재무관리 교육의 현장에서 여전히 '투자의 기법'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기술적 내용이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진정한 부자'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자칫 부에 대한 환상, 투자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일확천금주의가 팽배해지면 중국에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나 투자시장에서도 합리성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낙오자를 대량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재무관리 가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 사례는 매우 부족하다.

돈에 대한 가치와 태도는 개인의 철학과 종교 등의 배경에 따라 다양하다. 가령 금욕주의, 쾌락주의, 중용주의, 공리주의와 같은 철학적 배경에 따라 돈을 어

떻게 축적하고 사용하는 지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재무관리의 실천적 상황에서는 자신이 가진 종교적 가치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종교는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개인적 재무관리의 원리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 분야에서 물질관 혹은 재물관이나 부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언급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성경에는 재물에 관한 작간접적인 언급이 거의 700절이나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듯하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생활현장에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부조화를 겪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청지기' 개념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과 재무관리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실천적인 영역에서 학교 및 교회, 사회교육기관의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되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방대한 재무관리관련 말씀들을 재무관리이론과 접목하여 구성한 예는 드물며, 기독교적인 개인재무관리 교육지침이 마련된 예도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 관련 성경 구절들을 찾아 개인재무관리과정에 따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적인 재무관리 가치관 형성 및 실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 재무관리의 주요 목적은 개인이 원하는 생활양식을 달성하고 안정적이고 풍족하게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다. 개인 재무관리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단기적으로 생활양식 충족을 위한 소득의 획득과 소비 등 예산관리 둘째, 장 단기적으로 가계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위험관리 셋째, 장기적으로 더욱 풍족한 생활의 달성을 위한 투자 관리로 정리할 수 있다. 또 이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로 크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라는 문제에는 얼마만큼 돈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문제에는 본인의 욕구 충족만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욕구충족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무관리의 영역별로 성경적인 가치관과 실천지침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성경적인 '재물관'의 내용을 고찰하여 성경적인 개인재무관리의 목표와 가치를 규명한다. 둘째, 성경적 관점에서 '직업관'의 내용을 고찰하여 그리스도인의 직업선택교육 내용을 규명한다. 셋째, 성경적 관점에서 '부자론'의 내용을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투자와 이익관련 가치와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투자교육내용을 규명한다. 넷째 성경적 관점에서 '소비관'과 '나눔'을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그리스도인을 위한 소비문화, 나눔의 정신과 실천 등 소비지출교육 내용을 규명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 개인재무관리 영역에서 주요 개념 및 개념 이해를 위한 설명 도구 개발, 대안적인 실천 내용 등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로 관련 성경말씀을 인용하였으며 성경적 경제관 및 물질관에 대한 논문, 신문기사, 기독교 관련 서적 등과 개인 재무관리와 관련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개인 재무관리의 세부 영역

재무관리의 내용은 일반인에게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첫째, 재무관리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

기 때문이다. 재무관리는 소득의 획득과 구매, 소비 등 경제적 기능과 화폐수단의 이용 등 금융적 기능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금전관리, 저축관리, 지출관리, 자산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장단기에 걸친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제활동과 금전자산관리활동의 각 영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으로 인식된다. 둘째로, 개인 재무관리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거시경제적인 변화요인인 인플레이션, 금리변동, 환율변동, 조세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재무관리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변화추이를 면밀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은 비전문가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셋째로, 재무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 및 재무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한성 때문이다. 금융자본주의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매우 다양한 금융상품이 시장에 출현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은 여러 가지 기초자산을 혼합하여 설계되는 등 복잡성이 날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자본시장내의 금융회사간 장벽이 사라지고 새로운 투자상품의 설계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거의 제거되었다. 이처럼 투자회사들간의 무한 경쟁 상태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투자상품이 등장할 경우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이에 대한 완전한 정보탐색에 의한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개인재무설계분야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드와이어(Dwyer, 1989)와 가먼(Garman, 1994)은 개인재무설계의 영역을 소득과 지출관리(예산관리), 세금관리, 차용관리, 소득과 자산의 보호, 소득과 자산의 증대, 노후 자산관리로 나누고 있다. 신창용(1994)은 재무관리의 영역을 세금관리, 퇴직자금관리, 투자관리, 예산관리, 상속계획, 특별자금준비, 보험관리의 일곱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김성민 등(2003)은 예산관리, 세금관리, 지출관리, 신용관리, 보험관리, 투자관리, 은퇴설계의 일곱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윤정혜 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재무설계 또는 재무상담과 관련된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개

인재무관리의 영역을 가계의 재무상태 평가,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관리과정 및 자산증식·차용·은퇴준비 등의 분야별 재무관리행동, 재무문제 진단 및 대처 행동에 관한 주제들로 분류하였다.

2. 개인 재무관리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더욱 난해해지는 금융시장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이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이나 (사)금융교육협의회, 그리고 투자자교육협회를 중심으로 학교교육 및 사회단체교육을 통한 활발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의 재무관리 교육내용은 주로 개별 금융영역 및 상품별로 진행이 되고²⁾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시장 환경에 비해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지나치게 전문지식전달위주라는 비판을 받는다.

다양한 금융교육 영역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한 기존연구결과들은 금융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요구정도와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재무관리교육요구를 조사한 홍향숙(1997)의 연구에 따르면 저축영역에 대한 교육적 요구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보험과 주택 및 부동산, 세금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지출계획과 부채관리, 금전자원의 획득, 지역 사회자원에 대한 교육요구정도는 낮았다. 인터넷 재무상담 사례를 분석한 연구(김경자, 2001)에 따르면 저축과 투자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 한 예로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실시 내용의 예시를 보면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사금융피해 예방요령, 금융시장과 금융 감독의 이해, 은행·신용카드, 증권 거래 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보험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라이프 싸이클과 재무설계, 은행상품을 통한 효율적 자산관리, 알기 쉬운 펀드투자, 증권·투신상품을 통한 효율적 자산관리,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및 이용 시 유의사항, 상속 등 금융생활법률 해설 등이다 (<http://edu.fss.or.kr/edu/edu/edu4.jsp>).

으로 재무설계 요령과 평가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며 대출 및 부채관리에 대한 상담과 보험의 선택과 가입에 대한 상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상담요청이 있었던 저축과 투자에서도 목돈마련, 여유자금운용, 주택분양저축, 연금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반면에 대학생의 재무관리교육요구를 조사한 국내외 연구들(김경자·홍정하, 2002; 서인주, 2003; 백은영 외, 2004; 정운영·황덕순, 2006; 백은영 외, 2004; 성영애·최현자, 2000; 최현자·성영애, 2001; Baek, 2001; Lyons and Hunt, 2003; Muske and Winter, 2004)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의 경우 합리적인 지출계획과 예결산, 부동산 투자, 대출과 부채관리와 같은 신용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는데 장단기 재무목표를 잘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 대학생은 재무자원 및 지출, 건강보험, 은퇴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부채상환의 어려움과 충동구매의 문제를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나 지출 및 신용교육 분야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자(2001)는 성인 대상 재무상담의 주요 내용에서 재무설계요령과 가계상황 진단을 위해서 첫째, 예산 설정의 방법, 가계상황진단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저축과 투자영역에서는 상품별 금리 비교, 금융자산포트폴리오 평가, 노후 예상 연금 상품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그는 보험선택과 관련해서는 긴급자금의 마련, 보험상품선택, 보험가입방법, 보험계약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며, 대출 및 부채관리에서는 이자상환방식, 부채상환방법, 신용도 평가 및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을 제안하였다.

정운영·황덕순(2006)은 대학생들을 위한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에 돈에 대한 이해 및 재무관리의 필요성 인식, 재무설계 과정 및 계획세우기, 소득과 직업과의 관계, 세금의 종류, 합리적인 소비분석과 지출계획, 신용에 대한 이해와 부채상환, 금융기관의 종류 및 투자원리, 위험관리와 보험상품, 은퇴준비계획과 상속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3. 성경적 경제원리에 관한 선행연구

개인재무관리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성경적인 재물관이나 경제원리를 다루는 선행 연구들이 다수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을 주제별로 구분한다면 크게 성경적 재물관, 성경적 시장 및 경제구조, 성경적 노동관, 성경적 기업관, 성경적 소비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성경적 재물관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재무관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영역이다. 성경적 재물관을 다룬 연구들은 포스터(Foster, 1989), 켈리(Kelly, 2002), 힐과 피트(Hills and Pitts, 2004), 서현경(2006), 김정일(2006), 황호찬(1996), 이진창(1991) 등이 있다. 성경적 재물관에 관한 연구들은 물신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성경에 돈의 죄악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재물의 소유를 옹호하고 있는지 또는 성경은 부요함을 부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연구들 간에 일관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편 성경적인 노동관을 다룬 연구들도 많지 않아 최근에는 김승욱·유해신(2002), 김재영(1989), 월레스(Wallace, 1988), 벵그렌(Wingren, 1975) 등이 있다. 그리고 성경적 기업관을 다룬 연구는 안동규 외(1994), 김승욱(2006), 황호찬(2006)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체로 '소명론'의 관점에서 노동을 해석하고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 즉 맡은 직업에 대한 순응을 특히 강조하였다. 성경적인 기업관으로 그리스도인의 사업경영은 세상적인 방법과 달라야 하며 따라서 정직, 상호신뢰, 성실, 사랑, 봉사, 헌신 등의 경영윤리가 주된 성경적 경영원리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의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성경적 시장 및 경제구조를 다룬 연구들은 다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존슨(Johnson, 1990), 홀트만(Haltzman, 1999), 바이스너(Beisner, 1993), 김은수(1997), 한동근(1998), 조용훈(1998), 이은선(1999), 최태연(2002), 김동호

(2001), 김동윤(2005) 등이 있다. 이 분야에서의 성경적 경제 원리의 내용은 방대한 편인데 소유권과 사유재산권, 성경적 자유와 평등, 청지기의 삶, 성경적 경제체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분석대상은 그리스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로 확장되었고 국내 외환위기 등 경제변동과 그리스도인의 역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성경적 개인재무관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자산의 한 형태인 토지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강수·한동근(2000), 이재율(2006), 김승욱(2007)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헨리조지 토지공개념의 사상과 관련하여 논쟁에서 학자들 간 부의 소유권과 더불어 그것의 사용권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시각적 차이를 나타냈다.

성경적 소비관도 개인재무관리에 밀접한 관련된 주제인데 대표적인 연구는 카버너(Kavanaugh, 2006), 이재율(2006), 임성빈 외(2008), 김정일(2006)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적 소비관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 소비문화, 타락적 소비, 계층적 과소비 등을 비판하고 보다 검소한 소비생활, 그리고 자족하는 소비생활을 제안하고 있다. 개인적 재무관리 및 성경적 경제 원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각 재무관리영역에서 포함되는 주제들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1〉 재무관리영역에 따른 선행연구들의 주요주제

선행연구분야	개인 재무관리 교육	성경적 경제원리
개인재무 관리영역(Garman)		
재무목표	재무목표와 계획	재물관 및 소유권
소득과 지출관리	직업정보탐색, 합리적인 소비생활전략, 예산 설정	직업관(노동관), 현대 소비문화 비판 및 타락적 소비

선행연구분야 개인재무 관리영역(Garman)	개인 재무관리 교육	성경적 경제원리
세금관리	소득세(소득, 사업, 금융소득 및 양도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절감방법	
차용관리	부채적정성, 신용관리, 채무해결	빛의 허용 및 상환
소득과 자산의 보호	보험의 선택과 가입, 은퇴준비와 상속	
소득과 자산의 증대	저축방법, 이자, 투자 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부동산 등)	투자와 이윤추구의 허용여부, 부의 축적 의 목적

성경적 경제 원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재무관리영역 가운데 재무목표, 소득과 지출관리(차용관리포함), 소득과 자산의 증대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무목표영역에서 재물관과 재무가치교육, 소득과 지출관리 영역에서 직업관 및 직업교육, 그리고 소비관과 소비지출교육, 그리고 소득과 자산의 증대 영역에서 부자관 및 투자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성경적 재물관과 재무관리가치 교육

1. 성경적 재물관

(1) 부정적 재물관 - 맘몬이즘에 대한 경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재무적 어려움이나 교육요구정도도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일반인과 다른 창조관과 세

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재정문제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적인 가치체계에서 개인재무관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는 차별되어야 한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재정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사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재물은 NIV에서는 화폐(money)로, NKJV에서는 맘몬(mammon)으로 번역하고 있다.

한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하느니라.

성경에서 재물 또는 부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서술한 부분도 많다. 우선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라고 경고할 만큼 돈에 대한 사랑을 강력히 배척하고 있다. 또 아모스는 부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살찐 암소로 표현하고 있으며(암 4:1), 복음서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어려움을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막 10:25). 또 누가는 예수께서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를 대비하면서 각각 복과 화를 선포하심을 전하고 있다(눅 6: 20-25).

힐과 피트(Hill and Pitts, 2004: 51-64)는 이 맘몬의 영향력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즉 맘몬의 영향력은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 잘못된 돈 관리, 지속적인 재정 결핍, 돈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사고방식, 충동적 구매, 인색함, 욕심, 불만족, 빛의 명에, 열째, 돈에 대한 과장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과대평가이다. 부유함으로 인한 구속은 옴의 고백 속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는 31장에서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

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 하였던가(24-25절)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28절). 이에 따르면 부유함으로 인한 구속 증상은 금(재물)에 대한 소망, 의뢰함, 기쁨으로 나타난다.

2) 축복의 통로 - 긍정적 재물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본 절에서는 개인의 재무관리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성경적인 재무목표의 설정은 재무관련 가치관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성경에서 재물과 부자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성경적인 재물관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주제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셨는가에 대한 것인 듯하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어느 정도 공통된 결론은 하나님은 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우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은 '사적 소유'의 인정을 가정한 구절이 많다. 창세기 24장3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 은금, 노비, 약대, 나귀 등 생계를 위해 필요한 물질을 개인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저변에 소유를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창세기 26장 12-13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삭을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했다고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야곱 역시 같은 축복을 받았다(창 32:5).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는 천하 열 왕보다 크다고(왕상 10:23) 역사서에는 기록하고 있다.

초대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예수가 '부자 세리들인 삭개오와 마태와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재물을 포기하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 '가진 것이 없으면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재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소유되었기 때문에 "소유"라고 불린다.'라고 하였다

(Kelly, 2002:280).

그렇다면 성경은 재물 또는 부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성경에는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많이 등장한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점이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의미하는데 먼저 재물 혹은 부유함은 복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경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하시고(잠 10:22) 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쁨이 있으며(잠 21:20).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잠 22:4)이라고 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의 한 종류로서 재물과 부유함을 인정하는 말씀이다. 솔로몬시대에는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의 상징이며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성경은 재물이나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잠언 3장 16-17절 말씀에서는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라고 적혀 있다. 또 잠언 8장 18절에도 "부귀가 내(하나님)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라고 하였다. 칼빈도 이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사람의 소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최고의 주인이신 분이 분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이은선, 1999: 151). 하나님께서 부유함의 원천이시라는 점은 특별히 중요한데 이는 부의 획득이 개인의 노력에 기인하지 않으며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상으로 분배해주실 만큼 특별히 좋은 것을 암시한다.

2. 성경적 재무관리 가치교육 내용

앞에서 제시한 mammon의 부정적인 영향력의 내용인 돈에 대한 걱정과 근심,

불만족, 지나친 의존과 과대평가 등은 그리스도인의 재무관리목표와 가치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며 '잘 관리하지 못함'이나 재정결핍은 재무관리계획과 관련된 교육내용이다. 위의 성경적 재물관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의 경제적 실천을 위한 경제교육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소유권과 청지기 역할에 대한 교육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권과 '재물의 공급하심'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은 욥에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욥 41:11), 모세에게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출 19:5), 시편기자에게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와 그의 것이다."(시 24:1), 율법에 "토지는 다 내 것임이로다."(레 25:23)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소유만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마찬가지로 선언하고 계시다. 마태복음 6장 31-32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의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못함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청지기' 역할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달란트)을 사용하고 재물을 관리하며 나중에 이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함에 대한 구복이나 경제적인 위협의 극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순간에서 우리는 재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솔로몬은 재물에 대한 간구함에 있어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잠 30:8). 그는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가 나 여호와가 누구냐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가난하게 되면 '생계를 위해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칼빈도 어거스틴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일하게 생명의 유업에 참여한다고 말했으

며 기독교인들은 가난을 지나치게 미화해서도 안 되고 부가 천국에 가는 장애물이 되게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이은선, 1999: 150).

요약하면 기독교인은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재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스스로 무조건적인 부유함의 추구를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기독교인은 재물 혹은 돈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돈의 구속이 지나친 가난이나 지나친 부유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나친 가난은 부채를 지게 되는데 빚을 진 자는 결국 채주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잠 22:7)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어렵다.

2) 자족하는 삶에 대한 훈련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대한 적합한 목표로 '자족'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디모데 전서 6장 7-8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자족의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적혀있다.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자족의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최저 생활수준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울의 생존 당시는 굶주리는 가난한 이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을 정도로 생존을 유지하는 정도의 경제수준이었다. 그러한 경제수준을 고려해 볼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생활수준은 생계수준을 넘어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족된 삶'으로의 훈련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12-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다. 자족의 상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한(잠 10:22) 상태가 된다.

3) 돈의 구속에서 벗어남

래리 버켓(Burkett, 2000)은 기독교인이 올바른 돈의 관리를 하기 위해 돈의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하기위한 제안한 8단계 지침을 제시하였다. 돈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1단계는 돈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소유권을 옮기는 것이다. 2단계는 빚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3단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들이다. 4단계는 조급한 결정을 삼가는 것이다. 5단계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다. 6단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남에게 잘 못한 일을 회복하는 것이다. 7단계는 자족하는 것이다. 8단계는 헌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³⁾. 9단계는 욕망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경적 재물가치관 교육 내용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성경적 재물관 및 실천적 지침의 내용은 개념적이며 교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 재무관리교육과 연계 시에는 목표설정의 기준을 설정할 때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이에 대하여는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과도한 노동이나 태만은 생활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결국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말고 그 사사로운 지혜를 버림(잠 23:4-5)으로써 직업과 여가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성경적 재물관에 입각한 재무관리 가치교육 내용

분류	일반 재무관리가치 교육 내용	성경적 재무관리 가치교육 내용	
		성경적 재물관	실천적 지침
돈에 대한 태도	화폐의 태도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수용 - 축복과 경계	돈에 대한 의존과 근심 배제
	화폐의 기능 - 소유 혹은 사용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 하나님의 소유권	칭지기적 가치를 수용
재무관리의 목표설정	목표설정의 중요성	가난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님	돈에 의한 구속 증상에 대한 이해와 점검
	장단기 목표설정 방법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함	자족하는 삶의 연습

IV. 성경적 직업관과 직업교육

1. 성경적 직업관

성경적으로 볼 때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노력하지 않고 재물을 간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일에 대한 최초의 묘사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 1:28)이다. 기독교적 노동관을 말할 때는 노동이 하나님께서 배려해 놓으신 활동이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의 일부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김재영, 1989, p17).

누가복음 25장의 칭기기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은 내가 알았으니'라고 말한다. 이는 전능한 주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태만을 합리화하는 태도이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고(26절) 무익한 종(30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청지기의 비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면 이를 열심히 거두고 모으도록 노력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다.

솔로몬은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늙자 하니 네 빈 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잠 24: 30-34) 또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잠 12:11)라고 하면서 부지런함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은 열 므나의 비유도 같은 맥락을 가진다. 더 나아가 은 열 므나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라고 할 정도로 작은 일에 충실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바울의 편지들은 일하라는 권면을 많이 담고 있으며 게으름과 나태에 대해서 꾸중하고 있다(살후 3:6-12). 바울은 수공업에 중시하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노동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볼 때 초대교회에서도 직업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세 가톨릭 사상의 가장 특징적인 소명 사상은 세상의 직업은 속되다고 보았고 세상과 분리되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거룩하다고 하였다. 반면 루터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분상으로는 동일하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만이 다르다고 보았다(Wingren, 1975:19-20). 칼빈은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 속에 포함된 무질서와 혼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Wallace, 1988; 138-40). 이러한 칼빈의 사상은 청교도들에게 계승되었는데 퍼킨스는 "삶의 목적은 사명으로 받은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좇아 일해서는 안되는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한계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있다"고 말한다(이은선, 1999: 158).

이와 같이 기독교인의 직업에 대한 태도는 직업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적 자세에 있다.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의 소명(calling)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제자답게 살라는 총체적인 부름이며(롬 1:7),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로의 부름이며(살전 2:12), 구원에로의 부름이다(롬 11:29). 따라서 직업의 선택은 소명 그 자체가 아니며, 구원에로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의 응답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김재영, 1989: 25)

2. 성경적 직업교육 내용

현대인들이 직업선택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은 임금수준, 명예, 안정성, 성장성 등이 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인 요인들과 성경적인 요인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직업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잘 실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직업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특정 직업의 유형을 서술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부들, 세리, 정치인(열심 당원) 등이 있었고 예수님은 목수였을 가능성도 많으며(마 13:55) 예수님께서 기꺼이 만난 사람들은 직업의 귀천이 없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은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었다(안동규 외, 1994). 이 연구에서는 공해물질배출, 뇌물 수수, 정실 인사, 소비자 기만, 내부자 거래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응답자의 행동을 측정하였는데 그리스도인 집단과 비 그리스도인 집단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황호찬(1996: 85-98)은 그리스도인의 사업경영은 세상과 달라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의의 경영, 사랑의 경영, 책임의 경영을 주요한 경영정책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선택할 때 노동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고를 하더라도 선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인의 직업선택은 직업의 종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직업생활에서의 신앙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직업을 소득획득의 수단과 방법보다는 섬김의 통로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게 될 경우에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와 같이 '자신의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과 수고의 진정한 목적은 선한 일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직업선택에서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판단기준은 '선한 일'에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경적 직업교육 내용을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성경적 직업관과 직업교육 내용

분류	일반적 직업교육 내용	성경적 직업교육 내용	
		성경적 직업관	실천 내용
노동에 대한 태도	노동과 임금에 대한 원리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게으름과 방탕함 경계 : 게으르고 약한 종, 무익한 종	작은 일에도 충성된 성실한 태도
직업의 목적	자신의 적성과 능력 발견 직업의 전망에 대한 이해	소명사상 :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의 일부분	선한 일과 선한 일로 부함, 섬김
직업선택의 기준	직업선택을 위한 정보탐색 취업준비	직업의 종류의 귀천을 가리지 않으심	직업생활의 신앙성: 섬김의 통로, 선한 일의 장, 충성된 태도

성경적인 직업관은 교회공동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현장에서 주

요 내용을 제시가 가능하며 직업탐색이나 적성교육 등과 병행하면 유용할 것이다.

V. 성경적인 부자관과 저축투자교육

1. 성경적 부자관

1) 합당한 부와 부자

'부자'에 대하여 성경에 부정적인 언급들이 많은 것은 널리 인용되는 사실이다. 우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통곡하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로 부한 자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부'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또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므로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민을 받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25절)을 나타내고 있다.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만으로 해석하기 쉬우나 여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임을(27-31) 명시하고 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부자나 가난한 자 여부가 아니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향유한 자의 회개이다.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유사하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할 일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인생의 중년기이후에는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물질에의 전적인 의존 증상과 다를 바가 없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있어 부 축적의 목적은 평안

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고(20절) 꾸짖으셨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되 재물에 대한 소망, 의뢰함, 기쁨을 배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복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좁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마 7:19-20)라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2) 투자를 통한 이익창출 : 부의 축적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투자를 통한 상업적 이익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성경이 쓰였던 시대의 경제적 환경은 금융적 투자는 물론이고 상업적 투자 행위가 보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투자행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은 "지혜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쁨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잠 21:20)고 하였다. 저축하는 행위가 지혜롭다는 말씀인데 저축은 왜 지혜로운 것인가? 그 근거로 비이스너(Beisner, 1993: 174-75)는 비상한 때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한 것(창세기 41장과 47장)과 미래 지향성(잠 21:17)을 제시하고 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고 또 자기 후손들의 미래를 대비하여 그들을 위하여 물려줄 기업을 성실하게 건설한다(잠 13:22). 성경은 미래 준비를 위한 '저축행위'는 지혜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초대 교부들의 경제사상은 '부의 축적'에 대하여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는 재물은 이웃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려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기적인 목적으로 재물을 소유하는 태도를 거부하였다. 마찬가지로 초대교부들인 카파도키아의 대 바실리우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콘스탄티노플의

요한 크리소스톰,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소유권에 대하여는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소유권만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Avila, 2008).

종교개혁가들인 루터, 멜랑히톤, 그리고 쾰링은 많은 재물의 소유가 과도한 이자의 취득과 상거래의 독점화와 연결된다고 보았고 이런 소유행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이희배, 2006). 루터가 농업은 근본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나 상업은 유통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금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칼빈은 상업이 노동의 분업화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직업이라고 보았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하겠다. 경건한 자의 생활은 정확하게 상업 활동과 비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교환하고 교역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상업을 옹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자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이자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성경에서 이자수취 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취급이 달랐던 점에서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당시의 일시적인 시민법이었다. 그러므로 성경자체는 이자 수취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했다(이은선, 1999).

홀트만(Haltman, 1999: 86-97)은 이처럼 성경기자들이 가졌던, 그리고 초대교부들이 가졌던 재산권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은 경제체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해석했다. 즉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사회와 20세기 자본주의자들의 경제성장과 번영, 생산자본으로서의 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사고방식이 전혀 달랐다. 성경기자들이 살았던 생존을 유지하는 정도의 생활이 보편적이었던 세계에서는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굶주리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미래만을 위해 축적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그는 자본주의시대에서는 부가 생산자본으로 이해되며 미래소비의 대상으로만 이해되지 않는데 비해 성경 기자들은 부를 재화의 소비대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 4〉 고대와 현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의 사용에 대한

성경의 접근방식

고대세계	현대세계	성경의 접근방식
소비	소비	성경에서 가르치는 소박한 생활
구제	구제	신자에게 필요함
미래 소비를 위해 부를 축적	미래 소비를 위해 부를 축적	성경에서 비난함
	생산자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음

출처 : 홀트만(Halteman, 1999: 96).

성경은 투자로부터 산출되는 '이자'의 성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다루는 부분으로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마 25:14-30)가 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 역할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동시에 그 청지기 역할이 생산적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서는 주인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모두 맡은 바 임무에서 투입보다 많은 산출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부가적인 산출을 내지 않는 종에게는 가혹한 꾸중과 대가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능력의 투입은 투입이상의 산출이 이루어졌을 때 충성된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 비유들은 생산성의 중요성, 그리고 투자의 수익성을 저변에 인정하고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한 공의를 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여된 생산과 투자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는 투자행위 자체 보다는 창출된 이익의 사용에 있다.

2. 성경적 저축·투자교육 내용

1) 기독교인들의 저축·투자관

현대인들에게 올해의 소원을 질문하면 종종 로또 당첨, 투자한 주식이나 보유 부동산의 폭등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투자 붐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무능력한 사람, 처세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욱 혼란스러워 졌다.

부동산 및 증권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과 기독교 정신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2004: 62-63)에 따르면 응답자의 61.8%는 부동산 및 증권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기독교 정신과는 무관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응답은 33.8%,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응답은 4.4%에 불과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이 61.8%나 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부의 축적과 종교적 신앙을 밀접하게 연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성경말씀들은 부자에 대하여 그리고 부의 축적과 이익의 산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지 않다.

2) 성경적 투자행위 원칙

성경에서의 여러 말씀들에 나타난 행동원칙들은 투자행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투자원칙의 첫째는 투자자의 결정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의 결정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책임한 투자는 증권시장의 온갖 루머나 권유들, 상업적인 광고들, 그리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투자방침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 잠언 14

장 15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 느니라'라고 하였다. 투자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을 삼가고 증권시장의 온갖 말을 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투자수익률이나 투자위험률 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탐색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기초적인 행위라고 말한다. 누가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는가"(눅 14:28)라고 하였다.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비용과 수익을 먼저 계산하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다. 투자비용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본의 이자와 투자관련 각종 수수료, 그리고 투자결정에 투입된 시간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투자하는 기업 및 그 산업 전반의 전망, 시장의 경기변동과 전망 등은 투자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투자비용과 투자수익률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충분한 정보탐색과 이해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에 있어서 성급함을 배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경은 부를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 쉬운 독수리(잠 23:4-5)에 비유할 정도로 쉽게 사라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성급하게 부를 쫓다가는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속칭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물은 순식간에 올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잠 28:20)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 말씀은 충성된 자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속성 즉 충성되지 못함, 성실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투자를 할 때 과원지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눅 13:6-9)를 대하듯이 장기적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

다. 베드로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을 거론하였다(벧후 1:5-6). 마찬가지로 투자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다운은 성급함이 아니라 절제와 인내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넷째, 성경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겸손함과 소신 있는 모습이다. 시편기자는 인생에서 실족하거나 미끄러질 뻔 한 원인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질투 때문이라고(시 73:2-3) 고백한다. 많은 투자자가 인내하지 못하고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성급해지는 이유는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달성한 놀라운 수익률에 대한 부러움, 질투 때문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성경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된다'(잠 24:3-4)고 충고한다. 투자자의 성공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따르고 자신만의 목표에 충실할 때 큰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성경적인 투자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비생활을 점검수정해야 한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벌어들인 것을 다 써 버리는 것은 미련한 자라고 하였다. 벌어들이는 것을 다써버리는 것은 과소비이며 또 현재 지향적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저축과 투자에 실패하는 근본 원인이 바로 현재지향적인 소비에 있다.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소비를 점검해야한다. 현재의 자신의 소비지출 상태나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 성경적 부자관과 저축·투자교육 내용

분류	일반 저축·투자 교육 내용	성경적 저축투자교육 내용	
		성경적 부자관 및 투자관	실천 내용
투자 목적	투자수익 목표 투자자본의 마련	어디에 보물을 쌓을 것인가 : 창고 혹은 하늘나라	회개를 통한 천국에 들어감
투자에 대한 이해	·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주식, 채권, 파생상품, 저축상품 등) · 증권투자분석 방법: 기초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등	· 부정적 태도: 미래의 소비만을 위한 과도한 축적은 비난 · 긍정적 태도: 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생산성)	· 하나님의 복인 재물의 활용은 공의로운 방식 · 축성된 자는 이익 창출 노력
투자의 원칙	· 자신의 투자 수익률 결정 · 투자자의 책임 · 투자자보호제도	· 책임 있는 투자 결정 · 성급함보다는 인내와 절제 · 기록과 계산으로 투자예측 · 겸손하고 소신 있는 투자태도 · 투자 전에 소비지출에 대한 점검과 수정	

가계부의 기록을 바탕으로 과도한 소비를 했는지, 불필요한 소비항목이 무엇인지, 예산이 정확히 수립되었는지, 저축의 비중이 적절한지, 절약한다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과 품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벌어들인 것을 다 소비하면서 투자를 하려면 빚을 내어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출을 통한 투자는 위험도가 정상적인 투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투자방법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성경적 부자관과 투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경적 투자교육 내용을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성경적 부자관과 저축투자교육 내용은 개인의 투자원칙을 수립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 투자교육에서 편중된 투자 상품 및 경제전망 교육과 병행한다면 보다 균형 잡힌 교육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VI. 성경적인 소비관과 나눔, 그리고 소비지출 교육내용

1. 성경적 소비관과 나눔

1) 성경적 소비관

기독교와 경제라는 주제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가 성경적인 돈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성경에서 수입의 용도는 세 가지이다(Haltzman, 1997: 86). 첫째는 모든 사람이 수입의 일부를 현재 필요한 일에 쓰는 것이다. 둘째는 수입의 일부는 십일조와 헌금에 쓰였다. 셋째는 사람들은 장차 쓸 일을 위해 수입의 일부를 남겨두었다. 성경에서는 부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 일관되게 필요한 만큼 사용할 것,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1999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소비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했듯이⁴⁾ 현대의 소비문화는 그리스도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현대의 소비문화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전통과 동떨어져서 신앙의 요소 중 극히 일부분만을 신앙의 내용으로 붙잡으면서 실제로는 수동적인 소비자로서 살고 기능하도록 길들여지게

4) "우리 시대의 역사는 비극적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시각이 이전에 마르크스주의, 나치즘, 파시즘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결과를 가졌다. 또한 인종적 우월성, 민족주의, 민족적 배타주의 같은 신화를 가졌다.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덜 해로운 것도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물질주의적 소비주의의 결과일 것이다. 인간적 열만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만족의 고양은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된다. 이런 입장에서 타인들에 대한 부정적 결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어디에서든 인간 존엄에 대한 어떤 모욕도 있어서는 안 된다"(Kavanaugh, 2006: 35, 재인용).

되는 문제이다(Miller, 2004: 9). 또 송재룡(2008: 66-85)은 한국 소비문화의 부정성, 예컨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비판받는 때 지어 물리고 쓸리는 소비자의 모습, 지나치게 과시적인 물질소유지향성과 비합리성 등의 근저에는 유교에 뿌리를 둔 '가족주의'에 있음을 비판한다.⁵⁾

소비욕구이론이나 소비자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이 어떤 재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간주되었다⁶⁾. 또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은 늘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돈이 부족한 상태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늘 돈을 축적하려고 한다고 이해하여왔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돈을 쫓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 자체나 돈을 소유한 상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해서 그것들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사랑하거나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상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비하는 것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비행태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전에 자신이 돈 쓰는 것을 사랑하는지 혹은 소비로 인해 드러나는 본인의 모습을 지나치게 즐기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돈에 대한 사랑, 소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부자들의 소비 양상은 낯선 모습이 전혀 아니다. 구약시대의 부자들이 소비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은 신랄하기까지 하다. 선지자 이사야는 당시 불법적으로 토지를 사들여 부를 축적한 부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아

5) 그는 유럽 기독교 국가에서 문화로 뿌리 내린 사랑과 정의 및 책임 또는 죄와 벌이라는 강력한 가치 평가적 집합의식이 공동체적 집합의식으로 전승된 기독교문화의식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소비문화에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6) 소비욕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에 근거를 둔다. 인간의 욕구는 물리적인 욕망(식욕이나 수면욕 등)이나 안전의 결핍, 소속감과 사랑, 타인의 인정,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에 기초한다. 최근 소비사회에서는 이러한 욕구들이 불충족이나 부족 때문 보다는 타인에게 비추어진 자아에 대한 의미 때문에 더 소비된다고 볼 수 있다.

침부터 밤이 깊도록 술에 취하거나'(사 5:11), '연회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포도주를 즐기면서 여호와와 그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관심치 않는다.'(사 5:12)고 묘사하고 있다. 선지자 아모스도 지배계급의 소비행태를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암 6:4-6)로 묘사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거나'(눅 12:10),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눅 16:19)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묘사된 부자들의 소비행태는 타락적 소비를 의미한다. 타락적 소비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여부이다. 하나님을 떠나 소비를 통한 쾌락을 사랑하고 소비의 결과로 나타난 과시와 권력을 사랑하게 되어 이상화하게 된다면 타락적 소비라고 볼 수 있다.

2) 성경적 '나눔'

한편 성경은 돈의 사용에 있어서 '나눠 주기'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구약시대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부의 나눔을 제도화하였다. 사이더(Sider, 1998: 105-115)는 성경적인 경제적 나눔에 대하여 희년, 안식년, 십일조와 이삭줍기에 대한 율법을 중요한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희년제도는 50년마다 땅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줘 모든 가족이 공동체의 존귀한 일원으로서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레 25:10-24). 사이더(Sider, 1998)는 이러한 희년제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자에 똑같이 근본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소유주 이시며 각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꾸려 나갈 수단을 가질 권리는 구매자의 재산권이나 전적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보다 우월하다. 동시에 희년은 청기지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각 가정이 관리하는 사유 재산의 중요성 또한 분명하게 확인하

로 국가가 모든 땅을 소유하는 사회주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1997: 110-111).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에 대한 이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7년마다 돌아가면서 특정한 땅의 생산을 쉬게 하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생산된 산출물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안식년 제도를 하는 이유는 '언제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기'(신 15:11) 때문이었고 명하여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느니라"(신 15:11)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또 이스라엘의 십일조와 이삭줍기 제도는 일시적으로 생산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규정의 일부이다(Sider, 1998: 115). 성경에서 십일조에 대한 규정들(신 14:22-29, 레 27:30-32, 신 26:12-15, 민 18:21-32)은 '매년 땅의 십분의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레 27:30, 14:22), 그리고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신 14:28) 다 내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십일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십일조는 여호와와의 것(말 3:8), 혹은 여호와와의 성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레 27:32). 둘째, 십일조의 용도는 사회공동체의 구제로 특히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신 14:29)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십일조는 개인적 차원에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말 3:10-11). 넷째, 십일조는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는 데 목적을 가진다(신 14:23).

한편 이스라엘의 이삭줍기 제도가 잘 나타난 성경은 룻기 2장이다. 가난한 과부 룻은 동전 한 푼 없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추수 때에 들에 나가 이삭줍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낱알들을 모아서 생계를 이을 수 있었다. 이삭줍기 제도는 사회의 극빈층이나 사회적 기반을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없었던 이민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솔로몬은 가난한 자에 대

한 선행의 당위성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잠 19:17)를 통해 명백히 알리고 있다.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나눔의 제도화보다는 나눔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실천을 독려하는 많은 구절들이 등장한다. 신약에 나타난 나눔과 관련된 말씀들을 정리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나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히 3:16, 잠 19:17). 둘째,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보상으로 복을 받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마 15:34-36, 눅 6:3). 셋째, 나눔의 실천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에 의해서 완성된다(약 2: 15-16, 막 10:21).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딤후 6:18)가 되라고 한다. 삭개오는 천국으로 가기위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눅 19:8)라고 고백하고 있다. 넷째, 성경은 나눔의 목적을 공동체 안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는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⁷⁾. 다섯째,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의무감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마 23:23, 고후 9:13)

이처럼 구약 농경시대에 적용되었던 제도들은 신약시대에 적용되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으며 이를 현대경제체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Sider, 1998: 117). 이들의 말씀의 근저에 있는 성경적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하나님이 자

7) '평균케 함'이란 공동체안의 평등성을 지향하지만 문자 그대로 똑같이짐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공동체안의 구성원들의 상호구제를 통한 보완적인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체 안의 나눔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적인 주고받음을 지향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나눠 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에게로만 부의 이전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대에서 이루어지는 나눠 주는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를 걸친 장기적인 상호보완적 행위를 주목하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는 '후에'라는 부분이 이것을 의미한다.

선이 아니라 정의를 원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 사이에 빈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성경적 소비지출 교육 내용

1) 단순한 삶과 소박한 삶

현대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하는 소비문화는 어떠한가? 이재율(2000: 59-65)은 그리스도인의 타락적 소비문화와 부정적인 소비문화를 개선할 대안으로 '소박한 삶'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소비의 증가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소비가 주는 쾌락에 탐닉하면 그것을 우상화하기 쉽고 나아가 부에 대한 강한 탐욕이 생긴다. 이것은 영혼을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빈곤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포스터(Foster, 1989: 85-87)는 예수께서 돈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들을 '단순성'으로 집약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단순성은 분열되지 않은 마음, 환희, 신뢰와 만족,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움, 단정함과 절제, 감사히 받음, 돈의 선용, 활용성, 관대함과 기꺼이 줌을 주요 특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박성관(임성빈 외, 2008: 163-171)은 이러한 현대 소비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교회공동체 문화를 통해서 극복되기 위해 소비문화와 소비자사이의 전략으로 '자족'을, 문화신학과 종교상품화 사이의 전략은 '영성'을, 공동체와 자유 사이의 전략은 '단순성', 도덕결정자로서 교회공동체의 전략은 '정의'를 제안하였다.

한편 성경에서 최저 소비생활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셨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풍성한 먹거리가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생계유지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먹고 입을 것의 향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비이다. 또

한 거룩한 산제사인 그리스도인 각자의 건강한 생활 유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차지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생활 유지를 위한 소비는 가장 기초적인 소비 요소이다.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물질의 풍요는 우리로 하여금 더 질이 높은 재화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였고 풍성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현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균적인 물질적 풍요일지라도 그 소비의 모습은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의 관점에서서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수준일 것이다.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의 기준은 물질적 소비의 절대적 기준 보다는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기준에 근거를 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한편 그리스도인이 속하는 사회의 가치기준 및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생활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면서 교회 공동체에는 무리하게 소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소비 가운데 그 가족을 돌보는 소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현하는 행위로서 충실히 이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말씀에서 '자기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믿음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소비행위로서의 타락적 소비를 엄하게 경계하는 반면 그리스도인의 자신과 가족을 돌봄을 위한 소비행위는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실천임을 나타내고 있다.

2) 나눔의 실천 태도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에 대하여 성경은 기쁨(고후 8:11), 희생(고후 8:2-3), 정성(고후 8:4), 지체 없음(고후 8:11), 자발성(출 25:2), 은밀함(마 6:2-4), 정직(행 5:4)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포스터(Foster, 1989: 87-98)는 '주기' 위한 일곱 가지 지침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관대하고도 기꺼

이 적절하게 주라. 십일조는 구약에서의 규칙이며 신약에서는 그 이상으로 나누었던 예들(막 12:41-44, 행 4:36-37)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즐겁고 관대한 심정으로 합리적인 기부와 모험적인 기부 사이에서 창조적인 긴장을 유지하라. 셋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유명도가 낮은 개인이나 단체를 찾아 주도록 하라. 넷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구하지 말고 주라. 다섯째, 너그럽고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들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라. 여섯째, 너그럽고 기꺼운 마음으로 적절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울 사람을 구하라. 일곱째, 너그럽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관심을 주는 사려 깊은 유언서를 작성해 두라.

〈표 6〉 성경적인 소비관과 소비지출교육 내용

분류	일반 소비지출 교육 내용	성경적 소비지출 교육 내용	
		성경적 소비관	실천 내용
현대소비 문화에 대한 이해	· 소비자사회문화와 소비권력에 대한 이해 · 윤리적 소비에 대한 제 이론	· 소비자체에 대한 사랑을 경계	· 신앙과 소비행위의 분리에 대한 반성 ·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소비문화 비판
소비가치와 행동	· 구매중독, 합리적 소비 부채관리	· 타락된 소비 · 가족 돌봄 소비	· 소박한 삶, 단순한 삶
나눔가치와 행동	· 공동체 문화 · 나눔과 환경을 고려한 소비자행동	· 성경적 나눔 제도 : 희년, 안식년, 십일조, 이삭줍기	· 현재 나눔 생활에의 적용: 목적과 방법 · 잘못된 나눔의 자세

이상에서 고찰한 성경적 소비관을 토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경적 소비지출교육 내용을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성경적인 소비관과 소비지출교육 내용은 교회공동체 교인들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내용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일반 소비지출교육이 구매중독의 진단이나 합리적 소비행동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소비문화와 소비가치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그 대안으로서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이나 나눔의 실천 등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실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Ⅶ. 결론과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개인재무관리의 영역별로 성경적 가치관과 실천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성경적인 개인재무관리교육내용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된 성경말씀을 토대로 관련 문헌들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였다 개인재무관리영역은 일반적으로 재무목표설정, 소득의 획득과 예산관리, 세금관리, 소비와 지출관리, 신용관리, 위험 및 보험관리, 투자관리, 은퇴설계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기독교의 경제윤리와 관련된 논문들과 성경말씀을 고찰한 결과 성경에 많이 나타난 개인재무관리를 위한 영역은 개인재무관리가치, 직업선택, 저축투자관리, 소비지출관리 등 기초적인 영역들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네 가지 개인재무관리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 말씀을 토대로 가치 및 태도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실천내용을 고찰하였다.

성경적인 개인재무관리가치는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긍정성과 재물의 사랑은 일만 악의 뿌리로 경계의 대상이라는 부정성을 모두 가진 재물관에 기초한다. 또한 모든 재물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재무관리가치의 내용은 청지기적 삶, 자족하는 삶, 그리고 돈에 구속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성경적인 직업관은 게으름과 방탕함을 경계하며 직업이 소명의 일부이며,

직업의 궁극적 목적은 '선한 일'에 있음에 있다. 직업교육의 실천적 내용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선한 일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직업생활의 신앙성은 직장생활을 통해 소득의 획득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섬김이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성경적인 투자관은 성경적인 '부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경은 여러 가지 부자와 관련된 비유를 통하여 부자 자체에 대하여는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어리석게 자신만을 위해 축적한 부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투자에 대한 이중적 태도로 연결되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난 투자활동 자체는 옹호하고 있는 반면 주의 가난을 돌보지 않는 이익의 추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성경적 부자 및 투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선정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실천적 투자교육내용은 첫째, 부의 축적의 목적은 내 자신이 아닌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기 위한 것으로 선한 일과 가난 구제를 중요하게 수용할 것, 둘째, 투자활동의 긍정성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식으로 투자해야한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행동원리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투자원칙을 제안하였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소비문화의 문제는 신앙적 전통과 소비생활의 분리로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한 것이다. 성경적인 소비관은 타락한 소비는 배격하는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돌봄을 위한 소비행위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또 성경적인 돈의 사용은 궁극적으로 '나눔'에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약시대의 나눔의 제도와 신약시대의 나눔의 정신을 고찰한 결과, 현대 그리스도인을 위한 소비지출관리교육 내용으로 첫째, 타락한 소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본인의 소비행동을 점검하고 단순한 소비와 소박한 소비에의 실천, 둘째, 나눔의 실천에서는 자신만의 현금원칙의 정립과 나눔의 성경적 태도를 제안하였다.

2. 성경적 재무관리 교육내용의 활용을 위한 제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한 구속' 상태에 놓이기 쉽다. 그리스도인 스스로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행동은 재물을 탐하고 의존하는 세속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권유하시는 재무관리 가치와 지침을 생활에 엄격히 적용한다면 지금까지의 세속적인 생활의 상당 부분의 희생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적용할 가장 중요한 도전가치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자본의 위력을 체험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돈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금전적,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돈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족하는 삶'의 가치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성경적인 개인재무관리는 자본주의 상흔에 길들여진 수동적인 소비자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더 많은 것을 향유하기 위해 빚을 짐을 지고 가는 재무관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훈련과 주변에 늘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 나눔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생활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경적 개인재무관리 교육 내용은 교회공동체의 성인을 위한 생활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성경적인 원리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재무관리교육과는 차별화된다. 교회공동체의 교육 현장일지라도 개인재무관리 교육수요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경적인 개인재무관리 교육내용은 경제지식 및 재무관리 방법 등에 대한 지식교육과 병행되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을 위한 개인 재무관리 교육 현장의 경우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내용은 보충적으로 활용가능하다. 가

령 개인재무관리의 가치관으로서 성경적 재물관에서 도출된 '자족하는 삶'과 '돈의 구속에서 벗어난 상태'에 대한 교육내용은 물신숭배적 투자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성경적 행동원칙에서 도출해낸 성경적 투자원칙 등은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투자행동 기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눔'에 대한 성경적 개인재무관리의 교육내용은 현대인의 돈의 사용에 대한 중요한 실천지침을 제시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윤리적인 경제행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및 개인의 윤리적인 경제행위로서 나눔은 가장 중요한 사회가치로 부상되었다. 성경은 노동, 소득, 그리고 부의 축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동체를 위한 나눔에 있음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의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와 방법 등은 현대인의 개인재무관리 교육에 공통적으로 포함될 내용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경적 개인재무관리교육 내용들은 기초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성경적 가치를 탐구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의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다양한 상담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또 하나의 연구주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 내용이 기초적이고 다양하여 일반 성인에 적용가능하다. 연령별 또는 생활주기별 개인재무관리의 과제가 상이하므로 향후 연령별 금융지식적 차원과 성경적 차원이 복합된 구체적인 개인재무관리교육 내용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자 (2001), "인터넷 재무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양식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207-220.
- 김경자·홍정하 (2002), "대학생들의 개인재무관리 교육 내용개발을 위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생화학연구논문집』, 22(1), 5-18.
- 김동윤 (2005), 『부자를 꿈꾸는 청지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김동호 (2001), 『깨끗한 부자』, 서울: 규장
- 김성민 외(2003), 『생활재무관리』, 서울: 경문사.
- 김승욱·유해신 (2002), "노동관의 제 유형과 성경적 노동관," 『신앙과 학문』, 7(1), 9-37.
- 김승욱(2006), "경제학적 기업관의 변천과 성경적 기업관," 『신앙과 학문』, 7(1), 87-125.
- 김승욱 (2007),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신앙과 학문』, 2(3), 83-124.
- 김은수 (1997), "John Calvin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따른 사회경제 윤리와 사상에 대한 소고," 『역사신학논총』, 13집, 8-49.
- 김재영 편 (1989), 『직업과 소명』, 서울: IVP.
- 김정일 (2006),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대한 성경적 비전: 특집논문; 맘몬이즘(mammonism)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과 극복 방안연구," 『통합연구』, 19(1), 91-118.
- 백은영·배미경·이승신 (2004), "재무교육이 미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재정관리 행동문제 인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8), 219-233.
- 서인주 (2003),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현경 (2006),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대한 성경적 비전: 특집논문; 현대 페티시즘(fetishism: 물신(物神)주의)의 기독교적 고찰," 『통합연구』, 19(1), 67-89.

- 윤정혜·김경자·성영애·손상희·양세정·이희숙·최현자 (2001), "소비자재무설계·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 『소비자학연구』, 12(3), 89-108.
- 성영애·최현자 (2000),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가계부채문제의 규명,"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93-207.
- 송재룡 (2008), "한국 소비문화의 밈(meme)과 기독교문화 : 문화-언어적 관점에서," 『소비문화시대의 기독교』, 예영커뮤니케이션, 57-94.
- 신창용(1994), 『중견기업가의 개인재무관리』, 서울: 홍익미디어.
- 안동규·주우진·한기수·송지환·한정화·황호찬 (1994), 『한국 경영자의 윤리의식 조사 및 윤리적 경영 풍토 조성을 위한 연구』.
- 이건창 (1991),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연구 / 특집 : 가난과 부요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 가난과 그리스도인의 경제원리에 관한 소고" 『통합연구』, 14(2), 85-105.
- 이은선(1999), "칼빈과 청교도의 경제윤리," 『개혁신학과 경제윤리』, 제6회 정기학술 심포지엄 발표논문, 137-164.
- 이재율(2000), "기독교 소비윤리에 관한 소고," 『신앙과 학문』, 5(1), 51-73.
- _____(2006),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는 성경적인가?," 『신앙과 학문』, 11(2), 171-196.
- 이혁배 (2006), "분배문제에 대한 요릭 슈피겔(Yorick spiegel)의 경제 윤리적 성찰," 『기독교철학』, 제2호, 77-108.
- 임성빈의 7명 (2008), 『소비문화시대의 기독교』, 예영커뮤니케이션.
- 전강수·한동근 (2000),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경제학연구』, 48(2), 125-153.
- 정운영·황덕순 (2006), "대학생을 위한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999-1014.
- 조용훈 (1998), "신앙과 경제윤리," 『통합연구』, 11(1:2), 통권 33호, 통합연구학회.
- 최태연 (2002), "경제원리에 대한 기독교 철학적 논의," 『신앙과 학문』, 7(2), 154-179.

- 최현자·성영애 (2001),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9(1), 235-251.
- 한동근 (1998a), "청지기 윤리의 위기와 경제위기," 『통합연구』, 11(34), 65-86.
- _____ (1998b), "경제 : 토지문제와 경제개혁의 방향," 『신앙과 학문』, 3(10), 53-74.
-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2004),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사회 의식조사』, 한울아카데미.
- 황호찬 (1996), 『돈, 그 끝없는 유혹』, 서울: IVP.
- _____ (2006), "기업영성 : 함축적 의미와 적용," 『신앙과 학문』, 11(1), 199-220.
- 홍향숙 (1997) "기혼여성의 재무관리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자정관리학회』, 15(1), 53-69.
- Avila Charles (2004), *Ownership: Early Christians Teaching*, 김유준 역 (2008), 『초대 교부들의 경제사상, 소유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Baek, E. (2001), "Financial Concerns and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6-25.
- Beisner, E. Calvin (1988), *Prosperity and Poverty*, 김재영 역(1993), 『경제 정의 실천을 위한 바른 경제 윤리』,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사.
- Burkett, Larry(2000), *How to Manage Your Money*, Moody Publishers, U. S.
- Dwyer, D. P. (1989), *The Seven Stages of Financial Planing : A Case Study Approach to Financial Planing*, Longman financial services publishing, a division of Longman financial services institute, Inc.
- Foster, Ronald, J. (1985), *Money, Sex, Power*, 김영호 역(1989), 돈, 섹스, 권력, 서울: 두란노.
- Garman, E. T. and Forgue R. E. (1994), *Personal Finance*, 4th ed.,

- Boston, MA : Houghton Mifflin Company.
- Halteman James (1997), *The Clashing Worlds of Economics and Faith*, 김원주 역 (1999), 『신앙과 경제』, 서울: 아카페.
- Hill, Craig and Earl Pitts(2001), *God's Biblical Principles of Finance*, 허 령 역 (2004),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 Johnson, Luke T. (1986) *Sharing Possessions*, 최태영 역(1990), 『소유와 분배』,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 Kavanaugh, John F. (2006), *Following Christ in a Consumer Society*, NY, Maryknoll Orbis Books.
- Kelly Joseph F. (1997), *The World of the Early Christians*, 방성규 역 (2002), 『초대 기독교인들의 세계』, 도서출판 이레서원.
- Lyons, A. C. and J. L. Hunt (2003), "The Credit Practices and Financial education needs of Community College Stud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4(2), 63-74.
- Miller, Vincent, J. (2004), *Consuming Religion: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in a Consumer Culture*, New York, London: Continuum.
- Muske G. and Winter M (2004),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Education: An Alternative Paradigm,"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5(2), 79-88.
- Sider Ronald, J. (1997), *Rich Christians in and Age of Hunger*, 한화룡 역 (1998),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IVP.
- Wallace, Ronald S. (1957),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s*, 나용화 역 (1988),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기독교문서선교회.
- Wingren, Gustaf (1957), *Luther on Vocation*, 맹용길 역 (1975), 『루터의 소명론』, 컨콜디아사.

ABSTRACT

A Study on the Economic Education Contents of Biblical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Sungsook Kim(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the biblical values and practical principles related to the personal financial problems, and to develop the education contents for the christians' financial management. The main areas of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PFM)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areas of financial planning, that is, PFM goals, jobs and earnings, savings and investments, and use of money. The Biblical values in the PFM were 'not loving of the money,' the part of calling, accumulating in the heaven, sharing in each area of PFM.

The Biblical principles of practices in PFM were as follows. First, christians' purposes in the PFM should be in the steward life and self-contentment in the base of the Biblical attitude of money. It means the status of being free from the servitude of money. Second, the main criteria of christians' choice of jobs should be 'the good deed' in the Biblical value of vocation. Also the faithfulness is the another Biblical principle in the job life. Third, the investment cannot be denied in the Biblical attitude of the profit and commercial activities.

In Bible, not the activities but the purpose of the accumulation of wealth is emphasiz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Biblical purpose of that is the sharing of the wealth accumulated from the good business. Finally, the corrupt consumption should be prevented from the christians' lives in the Biblical values of consumption, for it is the result of the love of money and means the separation from God. The practical principle in the Biblical use of money is the sharing of the wealth with people, especially the poor and the disadvantaged in the community.

Key Words : Biblical Attitude of Money, Biblical Attitude of Vocation, Biblical attitude of investment, Biblical Use of Money, Consumption, Sharing, Servitude of Money